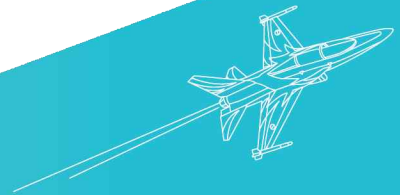


# 서울경제TV 대담 인터뷰





## 인터뷰 원고

### #코너 + <이슈플러스> 대담

[오프닝] 윤석열 정부가 우주항공청 설립 입지를  
경남 사천시로 확정 지었습니다.

경남 지역은 우주항공청 설립과 함께

‘우주산업 협력지구 위성 특화지구’로도 선정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 플러스에선 박동식 사천시장을 모시고  
우주항공산업을 비롯한 사천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1. 먼저 우주항공청의 사천 설립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설명해 주실까요?

예, 우리 사천시는 우리나라 우주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될 우주항공청 설치 확정으로

글로벌 우주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우주도시로서 뉴스페이스 시대의 최선봉에 위치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주항공청 신설로 인구증가뿐만 아니라 우주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주항공청 설립에 따른 정주여건 등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진다면, 우리 시만의 경제 효과를 넘어 전국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우주항공청 출범까지 준비절차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사천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까?

예, 정부는 올해 우주항공청을 사천에 개청한다는 목표로 상반기에 특별법을 상정하고,  
하반기에는 직제와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사천시도 정부의 계획에 따라  
성공적인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해  
발 빠르게 사전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청사 후보지들의 장단점 분석과 함께  
필요한 행정절차를 검토했으며,  
이 자료를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에 제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속한 부지 확정과 함께  
개청에 필요한 임시청사 또한 추진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최적의 장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주항공청 직원들이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이주자를 위한 각종 지원시책도 마련하겠습니다.

3. 이런 가운데, 최근 사천시를 비롯한 경남지역은  
'우주산업 협력지구 위성 특화지구'로도 선정되기도 했죠?

예, 정부는 지난해 12월 21일 대통령 소속  
국가우주위원회를 열고 경상남도를  
우주산업 협력지구 위성특화지구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도에서 사천에는 위성제조혁신센터를  
진주에는 우주환경시험시설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내에 구축되는 위성제조혁신센터는  
기업의 연구, 제조, 사업화를 한 곳에서 지원하는  
클러스터의 중심축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비즈니스존, 메이커존, 네트워크존, 기업 입주공간 등으로  
구성해 2026년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4. 우주항공청 설립 등은 지난해 사천시가 이룬 가장 큰 성과로 보이는데요. 올해 사천시가 추진하려는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까요?

예, 우리 사천시의 올해 주요 현안은 어려운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일입니다.

먼저, 저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사천사랑상품권을 1월 10일부터 발행하여 순조롭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 마련을 위해 전통시장별로 특색있는 전통시장 축제를 개최하고,

삼천포 수산시장에 위생적이고 깨끗한 해수공급을 위해 지난해 7월 해수 인입공사를 착공했으며, 오는 5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청정해수 공급에 따른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명품 수산시장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소상공인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과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게 보다 실질적으로 몸에 와 닿는 시책을 추진합니다.

5. 사천시는 수려한 자연환경으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관광활성화 전략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올해 우리 사천시는 볼거리와 즐길 거리의 완벽한 조합으로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머무르는 관광도시로 완벽하게 탈바꿈시킬 계획입니다.

초양도 일원에 사천 앞바다와 실안낙조를 조망할 수 있는 대관람차, 회전목마 등 유원시설을 오는 3월 준공한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천바다케이בל카와 아라마루 아쿠아리움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로 우리 시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섬들을 연결하는 무지갯빛 생태탐방로 건설을 위해 환경부의 협의를 끌어내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무지갯빛 해안도로 일대를 문화체육관광부의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계획’에 포함시켜 역사와 지형이 어우러진 관광명소로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민간자본 1,200억 원으로 추진 중인 실안 호텔을 조기에 착공하겠으며, 남일대 엘리너스 호텔도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6.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도전이 없는 도시는 미래가 없고

실천할 용기가 없는 도시는 성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시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오직 시민들의 힘과 응원을 받아

우리 시 전략산업의 압도적이고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며, 시민의 삶이 더욱더 나아질 수 있도록  
매진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행복도시 사천을 위해

저와 함께 열심히 뛰어 봅시다.

올해는 검은 토끼의 기운을 받아서 거침없이 성장하는  
멋진 한 해가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민족의 전통명절인 설날입니다.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모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7. [마무리 멘트] 사천시가 우주항공청 설립 등

성장 동력을 잘 마련해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